■ 휠보레 튜닝 후 모습

누구나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휠보레는 휠과 직접 맞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실리콘을 적용해 충격으로부터 휠을 보호할 뿐 아니라, 10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 드라이버의 개성도 살릴 수 있다. 사진제공 | 휠보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 튜닝…‘휠보레’를 아시나요?

휠 보호+개성 동시에 잡은 ‘휠보레’

특수 폴리아미드·실리콘 사용해 ‘2중 보호’
소비자의 개성 따라 10가지 컬러 선택 가능
파손 부위만 교체…휠 복원 비용보다 저렴
고속주행 등 각종 테스트 통과 안전성 입증

자동차 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드레스업 제품 ‘휠보레’를 아시나요.

자동차 디자인의 완성은 ‘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휠이 바뀌면 자동차 전체의 인상이 달라진다. 자동차 마니아들이 신차를 구입하자마자 순정 휠을 떼어내고 한 짝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제 휠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도 휠을 통해 자신만의 자동차 디자인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존심이 구두라면 자동차에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휠이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휠이지만 좁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혹은 주차 중에 가장 쉽게 흠집이 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휠이다. 어떻게 하면 ‘내 차의 자존심’ 휠을 보호하면서 드레스업 효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휠보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휠보레의 특징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에서 열린 ‘튜닝카경진대회’의 휠보레 부스. 국내 튜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휠보레가 자동차 마니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휠보레

●휠보레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타이어와 휠 사이에 접이식 날개 방식으로 장착돼 휠을 보호해주는 휠보레는 2011년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이후 극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주행 실험을 통해 품질력을 끌어올린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췄다.

휠보레는 내구성이 높은 특수 폴리아미드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휠과 직접 맞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실리콘을 적용해 방지턱, 기둥 등 주·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충격을 흡수해 2중으로 휠을 보호한다.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어도 4바퀴 모두가 아니라 손상된 부분만 바꿀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파손부위만 따로 교체할 수 있어 고가의 휠 복원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15~20인치의 다양한 휠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고, 드라이버의 개성에 맞는 10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휠보레 장착 후 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휠보레는 타이어와 휠에 장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휠보레는 탄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과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구성된 2중 구조를 채택해 충격 보호 효과를 높였다. 얼핏 보면 휠과 동일한 메탈 재질인 듯 보이지만 탄성이 좋은 특수 PVC 재질을 사용하여 충격이 가해질 경우 쉽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조되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인 PVC는 원래 딱딱한 물질이지만 프탈산계(phthalates, DEHP, DINP, DBP 등)와 아디핀산계(adipates, DHEA)와 같은 가소제를 사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제품화에 성공했다.

고속 주행 테스트도 마쳤다. 시속 240km의 고속 테스트, 요철 및 비포장 테스트, 온도변형 테스트(-30도~80도)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롱텀 테스트도 통과했다. 휠보레를 장착한 후 1년간 실사용 테스트에서도 휠 밸런스 붕괴로 인한 편마모, 핸들떨림 등의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나?

‘휠보레’는 누구나 10분 이내 탈부착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에 고정시킬 수 있다. 제작, 수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DIY가 가능한 제품이다. 휠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휠의 돌출 부분만 커버하며, 100g 미만의 중량을 통해 연료소비를 최소화했다. 휠 밸런스에도 영향이 없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접이식 날개방식을 통해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가까이서 보면 접착테이프가 드러나거나 라인이 맞지 않는 수입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오토쇼서도 휠보레 인기 자동차 튜닝시장의 선봉

2013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시장 종합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현재 5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산업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자동차 튜닝시장의 중심 상품이 ‘휠’이기 때문에 ‘휠보레’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휠보레는 지난해 7월 열린 ‘2014 서울오토살롱’에서 자동차 마니아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휠보레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토쇼’ 참가와 일간지 및 종합채널 TV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제품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리점 모집문의 1600-1498 www.wheelbore.kr·제품문의 02-2263-2239 www.wheelbore.co.kr

르노삼성 ‘SM5 Nova’ 더 중후해졌다

디자인 변화…LED 주간 주행등 장착
와이파이 방식 ‘스마트 미러링’ 탑재

르노삼성자동차는 5일 자사의 주력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인 SM5의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변경한 SM5 Nova를 출시했다.

르노삼성의 패밀리룩을 적용한 디자인 변경은 2013년 12월 QM3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4년 SM3 Neo, QM5 Neo, SM7 Nova를 거쳐 SM5 Nova를 끝으로 전 라인업에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 적용을 모두 마쳤다. 그동안 르노가 추진한 디자인 변화는 내수 시장 판매 확대로 이어져 왔다. 가장 대중적인 볼륨 모델인 SM5 Nova는 디자인 변화를 통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봤다.

르노삼성자동차가 5일 출시한 SM5 Nova는 볼륨감 있는 프런트 룩 디자인과 스마트 미러링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의사양을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중후함 더한 프런트 룩…편의 사양도 업그레이드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SM5 Nova는 한층 볼륨감을 더한 프런트 룩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띈다. 중형차가 지녀야할 중후함을 이전 모델보다 한층 더 높였다. 최근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LED 주간 주행등도 새롭게 장착했다. 아울러 전 트림에 동승석 시트조절 장치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고, 일부 고급 트림에는 통풍시트를 추가해 준중형 세단 수준의 감성 만족도를 실현했다. ‘노르딕 블루’라는 감각적인 신규 컬러도 선보였고, 17인치 TCE 모델 전용 알로이 휠과 18인치 프레스티지 알로이 휠을 신규 적용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SM5 Nov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첨단 사양은 SM7 Nova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었던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이다. 기존 경쟁사에서 선보인 블루투스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과 차량의 모니터를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어서 안정성이 더욱 높다. 차량의 모니터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양방향으로 터치하고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음악이나 동영상도 차량 모니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SM5 Nova의 가격은 트림별로 11만~75만원 인상됐다. 가솔린 모델은 2250만~2890만원, TCE 모델은 2790만원, 디젤 모델은 2580만~2770만원, 장애인용 Lpi 모델은 2315만~2515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사고 재발 땐 사용승인 취소”

서울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제2롯데월드에 대해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잦은 안전사고는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도 미비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제2롯데월드가 롯데물산,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등 시설별로 관련된 계열사가 사고에 대응하면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며 그룹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해 10월 임시개장 이후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 근로자 추락사, 캐주얼동 출입문 탈락 사고,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주차장 균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도 롯데측이 전문가 점검을 바로 실시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아 시민 불안을 불필요하게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신속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로 보고 롯데에 안전관리 시스템에 외부 전문가와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 기관과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고 발생 후에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시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 점검 결과와 초고층 건축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밀레니엄서울힐튼 ‘아브루초 요리’ 선봬

밀레니엄 서울힐튼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에서는 2015년 을미년 첫 프로모션으로 이탈리아 중동부 해안에 위치한 아브루초(Abruzzo)지방의 음식을 1월 한 달간 선보인다. 아브루초 지방의 요리는 페페론치니(Peperoncini)라는 고추를 사용한 매운 요리가 특히 유명하다. ‘이탈리아 매운 고추를 곁들인 훈제 모짜렐라 튀김’, ‘빵조각과 볶은 밤을 넣은 크림스프’, ‘해산물, 칠리 그리고 백포도주로 맛을 낸 탈리에리니(파스타)’, ‘매운 브로콜리를 곁들인 레몬향의 램찹 스테이크 또는 토마토 소스 연어구이’ 등이 코스 메뉴에 포함된다. 문의 : (02)317-3270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